

수퍼바이소

육묘사 건포육성
사리피해·병해저해
저온장애 극복
수경육성·비료방지

● 문의 및 구입처
02-406-4462

'국내 친환경 유통트렌드와 발전방향' 세미나

전라남도·농협 전남지역본부 주최

최근 유통바람과 함께 농산물 유통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유통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마련됐다.

전라남도, 농협중앙회전남지역본부와 '2005 친환경 전남 생명식품 상품설명회'의 일환으로 지난 10일 서울 양재동 아센터 중회의실에서 국내 친환경 유통 트렌드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친환경 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농업을 토대로 한 생산단지의 조성이 필요하며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의 경우 소비자들의 수요예측을 토대로 전략적·전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같이 했다.

이날 토론된 주요 내용을 지상증계한다.

주제발표

국내 친환경 유기농식품의 시장규모가 커짐에 따라 대형 유통업체와 식품업체들의 시장각축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유기농이 정착·발전하기 위해서는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지역 복합형·순환형 생태지역 농업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에서 친환경유기농산물을

전남도, '09년까지 친환경 인증목표율 30%로 1조799억원 투입키로

전라남도는 친환경 인증목표율 '09년까지 3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하에 총 1조799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전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친환경농업과를 신설했으며 생명식품생산 5개년 계획을 수립,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우선 친환경 농업의 기반구축과 교육홍보를 위해 17개 사업에 28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의 생산기반이 취약한 현실에서 외국산 유기농산물을 들여와 가공하거나 언제쯤 형태로 수입돼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입 유기농식품의 시장규모는 약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유아·청소년층을 겨냥한 간식류, 과자류, 반찬류, 음료류와 반찬류 등 친환경유기농식품이 집중 개발돼야 한다. 친환경 유기농업

이 정착·발전하기 위해서는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지역 복합형·순환형 생태지역 농업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에서 친환경유기농산물을

상품개발이 적극 모색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생산자나 생산자 조직이 친환경유기농산물 가공사업에 참여토록 유도하는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지정토론

전남에서 친환경 농산물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점에 적극 찬성한다. 전제조건은 신뢰구축이다. 국내 농산물이 친환경으로 판매될 때는 항상 잔재인지에 대한 의심에 부딪힌다. 판매 유통 부분도 간파해서는 안된다. 농협 하나로써와 같은 대형매장 유통경로를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하위업계의 전국적인 소규모 매장을 적극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특히 소매매장에 대해서는 세제감면 등 정부의 지원이 있었으면 한다. 또 전남도는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공급을 늘린다고 했는데 급식이나 친환경 농산물 식탁 개발이 병행된다면 좀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한국민운동을 전개해 생명기초와 우리나라·세계 국민의 건강이 모두 지켜질 수 있었으면 한다.

우선 수입 유기농 식품의 급증을 우려하는데 반론을 제기하고 싶다. 10~30권이 대부분인 소규모 매장과 달리 유통같은 큰 매장은 수입산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수입산이라고 해서 소비자가 무조건 찾는 것도 아니다. 다만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의 부분에서 수입산이 국산보다 앞선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미국, 일본, 독일 등지에서 수입된 유기식품에는 각국 정부에서 발행한 인증마크가 붙어있는 반면 우리나라 유기식품에는 품질관리원의 인증마크가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들은 인증마크의 여부에 따라 구매를 결정한다.

또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역은 면단위 혹은 마을단위라도 전체적으로 단지를 조성해 규모화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능력이 아무리 철저하게 하더라도 주변에 농약을 재배하는 농가가 있다면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부도 급식개선 운동 등을 통해 전라도는 1년에 100억원이 넘는 돈을 친환경 농산물 지원 확대 사업에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같은 선도적인 활동에 감사드린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교육, 홍보에 관한 부분이다. 정부는 막연히 소비자 코드를 맞추라, 수도권 소비자를 공략하라 등 피상적이고 끈구름 잡기식 처우하는 면이 있다. 지역 소비자부터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자로 만든다는 생각으로 한국의 전통 식문화와 연계해 지역 농산물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 친환경 농산물 사업에서 가공식품이 강조되고 있지만 과거 정부의 가공식품 육성정책처럼 자금만 남비하는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된다.

가공은 전문적인 영역으로 준비 없는 '남만' 만으로는 힘들다. 특히 중국시장이 위협적인 만큼 이에 대한 정책 자문단 구성을 제안한다.

환경농업의 망속 행방꾼 박멸 두더지 케치

두더지를 확실한 방법으로 없애서 제거하는 망속 케치 구인

- 100% 천연소재로 망속 사용
- 2년이상 사용 가능
- 망속 케치, 망속 케치

1. 두더지굴에 케치로 구멍 구멍
2. 케치 구멍에 케치를 넣고 손잡이를 돌린다
3. 케치에 케치로 케치를 돌려 케치 구멍이 막힌다
4. 케치로 케치를 돌려 케치 구멍이 막히면 케치 구멍이 막힌다

한번 농약값으로 반영구적 방제효과 나방 케치

'나방케치'는 불빛과 향기에 민감한 나방을 유인하여 공력으로 포집살충하는 기구로 농산물의 피해방지에 놀라운 효과를 드립니다.

● 1회 방제 농약값으로 반영구적 방제효과
● 수확과 매종의 구별 살충 효과
● 수명최종의 사진 예보기능
● 24시간 타이머 부착, 편리한 사용
● 수직은비용(일 사용 전기요금 1,560원/월) - 130w×10시간/1일×30일×40원/kw

다리 노린재의 완전박멸 노린재 페르몬

단감, 사과, 콩밭 등 노린재 피해의 주범

● 생체적 특성을 완전히 고려하여 확실하게 유인 제거하는 효과 탁월
● 최저렴한 비용
● 수명 100일, 2개월 방제

축사,농원,식당,유치원 모기안녕 모기 케치

인간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는 해충·모기를 제거하는 생활기구

● 축사·농원·식당·유치원 등 모기 유인한 후 즉류 전살 트랩시스템 이용해 해충을 박멸하는 장치
● 충전기소모량이 적어 경제적이며 반영구적 사용
● 축사,식당,사무실, 농가에 사용
● 수인이 손에 닿지 않게 케치주세요

천연 한미식초

★시중에 유사품이 유통되고 있으나 꼭 '천연한미식초' 확인 바랍니다.

대상작물	사용시기	희석배수	사용횟수
양파류	생육기	400~500배	2~3회/월
과채류	생육기	300배	2~3회/월
유채류	400~500배	1~2회/월	
파수류	생육기	200~300배	2~3회/월
양 채	부화기이내	유용수의 2%	지속적 급어
	부화기이후	유용수의 3%	"

● 병해발생시나 해충 발생시 최대 200~10배 이상 사용할 수 있으나, 사전에 작은 면적에 실험 후 장해유무를 확인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육묘사에는 1,000배로 약간 묽은 농도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천연 한미식초

1. 천연농산물 원료로만 제조 (양조식초임)

● 염미로 술을 빚어서 발효시킨 제품이며 제조과정에서 일체의 화학약품을 첨가하지 않음. 방부제 등을 섞지 않고 국내에서 가장 우수한 초산균으로 발효하였다.

● 포장단위 : 18ℓ (1말)

天然食品株式會社

본사: 경남 양산시 웅상읍 소주리 925-1
TEL: 055-366-8225-8
FAX: 055-366-8227

농협 813053-51-000461 예금주:천연식품(주)
● 상품은 입금후 바로 보내드립니다.

새콤한 자른는 나무·기름김, 육초까지

삼중보일러

도 총판 대리점 모집

경북(화정)경남(추진)충북(추진) 경기북,경기남,강원,충남,전남 전북,부산,울산,제주 등 권역별

한국산업
054-773-2517

농협 721015-52-357683 김해수